



# 후보 지지도 민주당 문대림 57%, 국민의힘 고광철 25%

## 제주시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와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가 양자 대결을 벌이는 4·10 총선 제주시갑 선거구에서는 문 후보가 지지도와 당선가능성에서 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모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한라일보 등 언론 4사가 4·10 총선 전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0일 실시했다. 조사 방법은 제주시갑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로 이뤄졌으며, 3063명 중 501명이 응답해 16.4%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 오차는 ±4.4%p(95% 신뢰수준)이다.

▶국회의원 후보 지지도=제주시갑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인물 중 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57%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25%는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를 선택했다. 문 후보와 고 후보의 지지도 격차는 32%p(포인트)다. '없다'고 답한 비율은 11%, 모름·응답 거절은 7%였다.

연령별 지지도 조사에서 문 후보는 고 후보에 비해 각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얻었다.

문 후보는 18~29세(52%), 30대(65%), 40대(71%), 50대(63%), 60대(47%)에서 고 후보에 모두 앞서며 오차범위 밖 지지를 받

##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당선 가능성 문 67%, 고 17%로 격차 더 벌어져  
문 40대·50대 각 76%... 고 70세 이상 27%로 높아  
정당지지도 민주당 45%·국힘 24%·조국혁신당 9% 순

았다. 고 후보는 70세 이상에서 53%를 기록해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문 후보(35%)를 앞섰다.

지역별 선호도조사에서 문 후보는 1권역(연동, 노형동) 59%, 2권역(애월읍, 한림읍, 한경면, 추자면) 56%, 3권역(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51%, 4권역(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66%를 기록

해 권역별 모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고 후보는 1권역 24%, 2권역 28%, 3권역 23%, 4권역 24%를 얻었다.

▶국회의원 당선 가능 후보=당선 가능성에서 두 후보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제주시갑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 67%가 문 후보를 선택해 17% 기

## 제주시갑 정당 지지도

조사완료 사례수(명) 501  
가중값 적용 사례수(명) 501 (단위: %)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4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1
개혁신당	2
자유통합당	0
조국혁신당	9
진보당	1
그외 정당	1
없다	12
모름/응답거절	3

록한 고 후보를 앞질렀다. 모름·응답거절은 16%였다. 연령대별 당선 가능성에서도 문 후보는 고 후보를 모두 오차범위 밖 경합 양상을 보였다.

문 후보는 40대와 50대에서 각각 76%를 얻어 가장 높은 예상도를 기록했고, 이어 30대 72%, 60대 65%, 18~29세 63%, 70세 이상 43% 등 순이었다. 고 후보는 70세 이상에서 27%를 얻었고, 이어 60대 24%, 18~29세 16%, 40대 13%, 30대와 50대에서 각각 12%의 당선 가능성이 접쳐졌다.

제주시갑 모든 권역별에서도 문 후보가 고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문 후보는 4권역에서 7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1권역 67%, 2권역 66%, 3권역 6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 후보는 2권역에서 20%로 가장 높았고, 이어 1권역 16%, 4권역 15%, 3권역 14% 등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제주시갑 선거구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의 지지를 받으며 국민의힘 24%보다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조국혁신당 9%, 녹색정의당 2%, 개혁신당 2%, 새로운미래·진보당·그외 정당 각 1% 순이었다. '없다', '모름·응답 거절'은 각각 12%, 3%였다.

정당지지도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18~29세 44%, 30대 53%, 40~50대 각 50%, 60대 38%, 70세 이상 26% 등을 나타냈다. 국민의힘은 18~29세·30대 각 12%, 40대 9%, 50대 23%, 60대 41%, 70세 이상 56% 등이었다.

정당지지도에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지지를 받은 조국혁신당은 40대(19%)에서 지지율이 높았고, 이어 50대 11%, 30대 9%, 60대 6%, 70세 이상 2%, 18~29세 1% 등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권역 46%, 2권역 45%, 3권역 42%, 4권역 43% 등으로 나타났고, 국민의힘은 1권역 22%, 2권역 28%, 3권역 24%, 4권역 22% 등을 기록하는 등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권역에서 국민의힘과 오차범위 밖 차이를 보였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 제주도민 10명 중 9명은 "투표하겠다"

## 총선 투표 참여 의향

'투표하겠다' 응답률 93%  
'확실히 투표' 18~29세 52%...  
70세 이상 92%로 가장 높아  
1차산업 종사자 투표 의지 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의향 조사 결과 10명 중 9명은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투표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향후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한라일보·뉴제주일보·헤드라인제주·

KCTV제주방송 등 도내 언론 4사가 실시한 4·10 총선 여론조사 결과 '투표하겠다'는 응답률은 93%로, 이 중 '확실히 투표하겠다'는 적극적 투표 의향률은 79%, '가능하면 투표하겠다'의 응답률은 14%였다.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의 응답률은 6%였고, 모름·응답거절은 1% 등이었다.

선거구별로 보면 서귀포시의 경우 80%가 '확실히 투표하겠다'고 응답했고,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15%,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는 5%, '모름·응답거절'은 1%를 기록했다.

또 제주시갑은 78%가 '확실히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15%,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는 7%로

나타났다.

제주시읍은 '확실히 투표하겠다' 80%, '가능하면 투표하겠다' 13%,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 6%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투표 의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투표 의향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확실히 투표하겠다'고 답한 응답률은 18~29세 52%, 30대 65%, 40대 83%, 50대 90%, 60대 88%, 70세 이상 92% 등으로 조사됐다.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18~29세 32%, 30대 25%, 40대 11%, 50대 6%, 60대 9%, 70세 이상 6%의 응답률을 보였다.

반면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는 18~29세 14%, 30대 9%, 40대 5%, 50대 4%, 60대 3

% 70세 이상 1% 등을 기록해 연령대별 투표 의향을 전적으로 분석하면 고령층일수록 투표 의지를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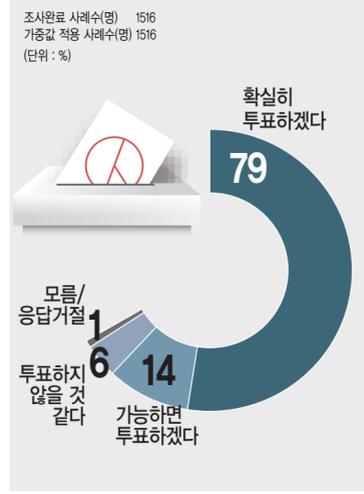
지지정당별 투표 의향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96%가 투표 의향을 밝혔고 이 중 '확실히 투표하겠다'는 85%,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11% 비율을 보였다.

국민의힘을 지지한 유권자의 95%가 투표 의향을 내비쳤고 이 중 '확실히 투표하겠다'는 84%,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11%였다.

'확실히 투표하겠다'로 답해 높은 투표 의지를 내비친 응답자를 직종별로 나누면 농·임·어업종 종사자가 8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자영업 85%, 가정주부 83%, 사무·관리 82%, 무직·은퇴·기타 80%, 기능노무·서비스 72%, 학생 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윤기자

## 제22대 총선 투표 의향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부패방지 10만 국민감시인단 제주특별자치도 회장 김창진·임원은 "불량공직자·정치인퇴출설명서"·"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강령" 의무·권한을 행사한다.

UIN국제단체연합소속(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과 300여개 사회시민단체 연합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하고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시민의 역량을 모으고 각계의 목소리를 높여 정치권에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고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시민이 참여하고 감시하여 청렴하고 능력있는 공직자가 선출되는 선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명서를 채택한다.

## 불량공직자·정치인퇴출설명서

- 하나, 공직자의 기본은 청렴이므로 각 정당과 공직기관은 「청렴한 정치인과 공직자」를 우대 공천하라!
- 하나, 부정부패 근절 없이는 국가의 미래가 없으므로 각 정당과 공직기관은 「부패전력자」를 퇴출하라!
- 하나, 각 정당과 공직기관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의 전력이 있는 공직자와 정치인을 퇴출하라!
- 하나,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거짓을 일삼는 「거짓말 정치인과 공직자」를 철저히 몰아내자!
- 하나, 철학과 소신 없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배신, 철새 정치인」을 축아내자!
- 하나, 국민이 주목하는 공개석상에서 품격을 잃고 막말과 폭력적인 언행으로 온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입힌 「막말 정치인과 공직자」를 깨끗이 청산하자!
- 하나, 오직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와 민족, 지역과 세대, 성별과 사상을 분열시켜 갈등을 유발하고 미움을 조장하는 「분열 정치인과 공직자」를 철저히 배격하자!
- 하나, 모든 정치적 「적폐」의 원인이 민주주의의 「주인」인 국민이 「주인」의 자리로 돌아가 「정치인과 공직자」를 「감시」하고 「불량정치인과 공직자」를 「색출」하여 퇴출시키고 깨끗하고 능력있는 「청렴한 정치인」과 공직자를 선출하자!

##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강령

- 하나, 비리나 뇌물을 멀리하고 부패를 용인하지 않으며 이 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빛과 소금)
- 하나, 각종 비리와 부패를 양산하는 일체 사회적 관행과 행정의 폐습을 퇴출하는 국민문화운동을 전개한다.(국민문화운동 전개)
- 하나, 권력형 부패의 근절 및 청산을 위해 정치제도를 개혁하도록 촉구하는 정치개혁국민운동을 전개한다.(국민적 정치개혁 전개)
- 하나, 관행적 뇌물과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하고, 내부거래를 발본색원하도록 정보공개와 국민적 감시활동을 전개한다.(국민적 감시활동 전개)
- 하나, 「전관예우」와 각종 이권개입과 같은 악습을 타파하도록 공정한 사법기구 감시운동을 전개한다.(사법기구 감시운동)
- 하나, 투명한 정세와 정책 및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행하는 국민예산감시운동을 전개한다.(국민예산감시운동)
- 하나, 교육 분야의 각종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여 교육개혁 운동을 전개한다.(교육개혁운동)
- 하나, 정치, 지방자치, 공직자, 국방, 종교, NGO, 사회복지, 경제분야, 공공기관, 언론등과 함께 전 방위적 반부패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반부패국민운동 전개)
- 하나,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투명한 나라가 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국민운동을 할 것을 결의한다.(지속적인 운동)